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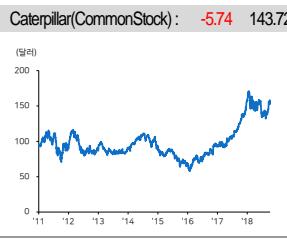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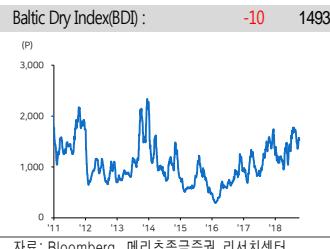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9,371.9	16.6	135,500	1.5	9.3	362	41.2	94.4	45.3	0.7	0.7	0.7	1.4
현대중공업주	6,433.2	20.6	395,000	0.3	6.3	14.8	3.7	5.3	4.4	0.7	0.6	14.1	14.7
현대미렉트릭	708.3	4.9	69,400	-2.0	9.3	13.6	-39.1	6.6	5.7	0.6	0.5	9.3	9.7
현대건설/기계	1,234.5	7.7	125,000	-6.0	7.3	2.9	-26.0	7.9	5.9	0.9	0.8	11.7	13.9
삼성중공업	4,756.5	18.1	7,550	0.1	0.5	14.0	16.7	47.6	23.6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789.7	9.6	35,350	2.3	14.0	38.4	154.3	8.8	18.8	1.0	1.0	12.4	5.3
현대미포조선	1,994.0	10.0	99,700	-0.8	5.5	22.3	26.7	21.5	15.5	0.8	0.7	3.6	4.8
한진중공업	221.6	6.8	2,090	-9.3	-21.9	-28.1	-36.9	42.0	10.5	0.3	0.3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797.3	22.8	103,000	-17.9	-9.3	302	89.3	182	17.7	25	22	14.6	13.3
두산밥캣	3,869.6	26.5	38,600	-3.1	6.0	27.0	9.2	14.1	13.3	1.1	1.0	7.4	7.6
현대로템	2,299.3	2.0	27,050	-14.9	-12.9	4.4	44.3	34.9	23.8	1.6	1.5	4.5	6.3
하이록코리아	340.3	48.9	25,000	1.2	11.1	22	11.1	11.3	10.4	1.0	0.9	8.8	9.0
성광밴드	367.5	16.1	12,850	2.0	16.3	12.7	28.8	1,135.9	46.1	0.8	0.8	0.1	1.8
태광	372.3	13.0	14,050	-0.4	15.2	23.2	16.6	83.9	41.0	0.9	0.9	1.0	2.1
두산중공업	1,569.8	14.4	13,400	-6.3	-9.5	-7.9	-12.7	25.0	7.6	0.5	0.4	2.4	5.3
두산인프리코어	1,967.1	20.8	9,450	-5.2	0.1	1.9	8.7	6.2	5.8	1.1	0.9	17.6	16.1
HSD에프진	140.8	4.3	4,275	-1.9	6.1	5.0	66.4	N/A	N/A	N/A	N/A	N/A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143.6	9.9	32,250	-3.7	-26.7	-19.8	-32.0	29.5	22.1	2.8	2.5	9.3	1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493.5	12.0	28,700	-0.9	6.1	25.9	-19.3	40.8	20.2	0.7	0.7	2.0	3.4
LIG넥스원	803.0	8.2	36,500	-1.2	8.3	-1.1	-39.0	39.0	18.7	1.3	1.2	3.4	6.8
태웅	256.1	4.7	12,800	-5.2	-12.3	-13.5	-33.9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34.5	6.0	8,690	2.6	17.9	40.8	72.1	-44.6	23.3	3.0	2.8	-6.4	12.4
한국카본	320.9	14.1	7,300	4.0	10.9	21.9	36.2	84.7	22.5	1.0	1.0	1.2	4.5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중공업 “4년만이야”… 5130억원 해양플랜트 수주

현대중공업은 4년 만에 미국 엘로그 일렉트로레이션사에서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FPS)를 수주함. 수주금액은 4.5억달러(약 5,130억원) 수준임. ‘강스 키’ 프로젝트에 사용될 FPS는 약 1년간 설계기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제작작업이 진행될 예정임. 해당 설비는 미국 남부 멕시코만에서 사용될 계획임. (동아일보)

Grimaldi reveals plan to install scrubbers on half its fleet

이탈리아 Grimaldi 그룹은 선대 120척 선박 절반에 스크러버를 장착할 계획을 밝힘. 선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ro-ro선과 자동차운반선 60척 이상에 스크러버 장착을 계획함. 동시에 1억유로(11.5억달러)를 투자해 MPP선 6척과 ropax 4척 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를 준비하고 있음. (TradeWinds)

Containerships confirms more LNG vessels

핀란드 선사 Containerships는 중국 Guangzhou Wenchong 조선소에 LNG추진 컨테이너선 5, 6호선을 발주함. 기존 계약은 4+4척으로, 이번에 옵션분 2척을 발주함. 첫 계약은 2014년에 체결되었으나 인도 지연이 발생함. 선박 크기는 1,400TEU급으로, 선가는 척당 3,200만달러로 알려짐. (TradeWinds)

한국 조선사, 5개월째 전세계 수주 1위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으로 전세계에 2,114만CGT 선박이 발주되었고, 한국이 950만CGT(212척)를 수주해 전체 물량의 45%를 차지함. 동기간 중국은 651만CGT를 수주해 31%를 차지했고, 일본은 243만CGT로 12%를 차지함. 글로벌 발주량은 2016년부터 증가 추세임. (조선비즈)

해양진흥공사, 13개 선사에 선박 확보비용 2천100억원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친환경 선박 등 선사의 신규 선박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해운, SK해운, H-Line, 폴라리스쉬핑에 1,380억원 규모 보증지원을 추진 중으로 알려짐. 동시에 중소형 선사에 후순위 투자와 S&LB(Sale and Lease Back)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임. (연합뉴스)

‘컨’선 발주 앞으로도 계속된다

글로벌 컨테이너선사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임. 선박 과잉이 확산됨에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규발주가 기대됨. 특히 중국 Cosco는 대규모 신조선 발주 계획을 가지고 있어 추가 발주가 예상됨. 동시에 현대상선이 발주하면서 타 선사도 추가 발주를 할 가능성성이 있음. (선박뉴스)